

삼층탑

국보

이 삼층탑은 1143년에 스토큐 천황(1119~1164년)의 비인 후지와라노 기요코(고카몬인이라는 원호로 알려져 있음. 1122~1182년)의 명으로 건립되었습니다. 현재의 건물은, 1180년에 고후쿠지 절의 가람 전체가 다이라노 시게히라(1158~1185년)의 군대가 별인 난토 야키우치['난토(南都: 남쪽의 도읍)'란 호쿠토(北都: 북쪽의 도읍) 즉, 교토와 대비하여 남쪽에 위치한 나라를 가리키는 별칭, 야키우치(燒討)는 화공을 의미]로 파괴된 직후에 재건된 것으로 북원당(北圓堂)과 함께 오늘날 고후쿠지 절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.

높이 19m의 이 삼층탑은 섬세한 윤곽과 우아한 외관으로 유명하며 헤이안 시대(794~1185년) 불교 건축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의 하나로도 꼽힙니다.

내부 기둥과 문미(창문 위에 가로 댄 나무), 천장, 내벽, 4개의 문 안쪽에는 모두 꽃무늬 당초문양이나 부처, 보살, 정자, 그리고 후원자로 보이는 인물들의 그림 등 다양한 장식이 덧붙여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층에는 4장의 판화가 있는데, 각각에 네 명의 부처(동쪽에 약사, 남쪽에 석가모니, 서쪽에 아미타, 북쪽에 미륵)가 각 1000 구씩 그려져 있습니다.

또한 고보대사(弘法大師)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승려 구카이(774~835년)가 고후쿠지 절에 권청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신 변재천의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. 변재천의 관에는 신도(神道) 스타일의 도리이가 있으며 그 위에는 노인의 얼굴을 한 뱀이 땅리를 틀고 있습니다. 이는 이 상이 인도 불교의 여신인 변재천과 일본의 토착신인 우가진이 결합된 것임을 보여줍니다.